

기고

오수현 목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공명선거 구현으로 참된 법치사회 이룩하자

국민이 주인되는 건전한 민주 시민 사회는 선거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그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때 실현 가능하다.

배격하고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후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금품을 받고 양심을 팔아 버린 유권자 역시 받은 금품의 10~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배신자로 낙인찍는 등 불법을 조장하며 이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민주 시민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거권에서 불법과 탐욕이 난무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부패한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단 선거로 창출된 정권은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국민은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정책과 공약에 의해 선택되지 않고 암묵적인 금권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라면 누가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라는 자산을 소중히 여겨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가꾸고 보전해야 할 것이다.

社說

지금 짜파구리를 즐길 때가

일명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환자가 최초 발원지인 중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에 올랐다. 뭐든지 남보다 앞서려는 게 한국인들의 근성이었지만 혹독한 감염병까지 1등을 할 필요는 없는데 안타깝다.

은 "전문 셰프들이 준비한 메뉴 외에 제 아내가 여러분께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포함됐다"고 자랑했다. 실제로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유명 중국요리 셰프에게 '짜파구리' 조리법을 배웠고 이날 오찬에는 스테이크용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한 '짜파구리' 요리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 국민이 코로나 사태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는 유유자적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상류층의 멋을 뽐낸 것이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아파트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 이용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전체 주거 공간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 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재질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을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리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그러나, 경량 칸막이에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말할 나위 없거니와 화재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불나면 대피먼저'를 상기하여 한줄기 생명의 통로임을 명심하고 아파트 입주인과 관리주체는 만의 하나에 대비하는 지혜로움으로 평상시 관리 측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차도 주행 전동휠체어 사고위험 이동권 보장돼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 등 고령자들은 일명 전동스쿠터라 불리는 전동휠체어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 휠체어가 없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보행 보조장치는 이분들에게 손발이나 다름없이 고마운 존재다.

자들이 인도 적치물 및 폭이 좁고 울퉁불퉁한 인도 등 이동권이 열악한 환경 탓에 차도로 내려 서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실상 도심 인도의 실태를 보면 각종 상가에서 올려놓은 홍보간판 및 적재물 등이 쌓여있는 구간이 많고 인도 폭 자체도 좁아 전

동보장구를 운행하기 힘든 여건이 많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일명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보도로 주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여서 인도로만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여서 발빠른 대처를 하기에 불가능한 형편인데다 일부의 경우, 안전장치마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사고예방을 위해 전동보장구 운전자부터 차도주행 및 야간주행을 피하는 나름대로의 대처가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Large advertisement for 'Hwangseong' (화용성) featuring a woman and a man, with text about social perspectives and a foundation logo.